

UNKNOWN WORLD

인도 아와디 왕국의 고도, 러크나우

A Common Thread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주도 러크나우. 갠지스 강의 지류인 고티 강변에 면한 이곳은 한때 찬란했던 아와디 왕국의 건축물과 공예 전통을 간직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Traditional embroidery and beautifully preserved architecture have helped the North Indian metropolis of Lucknow maintain a strong link to its regal past.





상쾌한 아침, 내가 탄 기차는 아치 길과 둥근 지붕으로 이루어진 적갈색의 차르바그 기차역으로 들어섰다. '차르바그'란 '네 개의 정원'이라는 뜻으로 무굴 제국의 정원 양식을 가리킨다. 그 이름을 증명이라도 하듯 기차역 앞에는 네모반듯하게 가꾼 4개의 정원이 눈에 띈다. 그 풍광은 형광색 가방을 든 사람들과 먼지 자욱한 공기 사이로 들리는 짐꾼들의 호객 소리만 없었다면 마치 페르시아 전래 동화의 배경으로 착각할 만큼 환상적이었다. 드디어 인도 북부의 고도(古都) 러크나우에 도착했다.

"러크나우에는 '치칸'이 유명해. 여기 머무르는 동안 치칸은 꼭 사도록 해." 플랫폼에서 만난 친구 니디가 출구로 향하면서 말했다. 그녀는 러크나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러크나우가 무굴 제국의 영향을 받은 음식 문화로 명성이 높다는 것이야 알고 있지만 닭고기 요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난 네가 채식주의자인 줄 알았어." 내가 한마디 하자, 니디는 깔깔거리며 숨이 넘어갈 듯 웃다가 간신히 말을 이었다. "치킨이 아니고 치칸이야."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러크나우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수(刺繡) 공예가 유명한데, 그것이 바로 치칸이다. 이곳의 자수 직물은 인도 전역에서 많은 여성들이 즐겨 찾는다고 한다. 사람들은 치칸이 무굴 제국 시대에 러크나우에서 시작됐다고 알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전인 기원전 3세기경부터 자수 공예가 발달했다고 말한다.

치칸은 러크나우와 그 주변 아와디 지역을 지배했던 통치자들이 지금은 성장기에 있는 현대의 대도시인 이곳에 남긴 수많은 유산 중 하나일 뿐이다. 무굴 제국 당시 '나와브'라 불린 지방 토후(土侯)들은 페르시아 혈통으로 18세기 초부터 영국이 아와디 지역을 합병하는 1856년까지 이곳을 지배했다. 러크나우를 포함해, 현재 인도 북부 지방에 남아 있는 아름다운 건축 유산 중 다수가 페르시아계 나와브의 통치하에 건축됐다. 그들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 조성된 이슬람 사원, 모스크, 무덤 등은 오늘날 러크나우 최고의 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우리는 삼륜차를 타고 전통시장인 차우크로 향했다. 니디는 차우크에 가면 아름다운 치칸 옷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지나치는 가게마다 손으로 그려 색칠한 알록달록한 광고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고 길 양쪽으로 단층 가게가 길게 늘어서 있다. 포틀랜드 시멘트와 코카콜라 광고지를 보며 이동하는 동안 우리 옆으로 무수히 많은 인파가 스쳐갔다. 그중에는 이슬람 전통 의상인 흰색 튜닉과 스컬캡이라 불리는 테두리 없는 베레모를 착용한 사람도 있고, 반짝이는 스웨터 조끼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

시장에 도착하자 니디는 나를 이끌고 음식 가판대와 땅콩 볶음 판매대를 지나 어느 골목으로 향했다. 치칸 자수를 놓을 수 있도록 긴 모슬린 천에 목판으로 문양을 찍어내는 작은 공방을 지나자 드디어 한 직물점에 다다랐다. "치칸을 파는 가게야."

It was a cool morning when my train pulled in to Lucknow's Charbagh Railway Station, a rust-hued palace of archways and cupolas. In front of the station was a terraced garden, constructed in the traditional *charbagh* (four-court) style for which the station was named. The complex would have made an ideal backdrop for a Persian fairytale, were it not for the crowds of families toting fluorescent-colored duffel bags and the cries of "porter, madam, porter" that cut through the stale, dusty air.

My friend Nidhi, who was born and raised in Lucknow, was waiting for me on the platform. "Lucknow is famous for *chikan*," she informed me as we joined the flow of pedestrians making their way towards the exit. "You absolutely must buy some while you are here." While I was aware that Lucknow was known for its rich, Mughal-influenced cuisine, I had never heard anything about chicken.

"I thought you were a vegetarian," I said, perplexed. Nidhi laughed. "Not chicken," she managed between giggles. "Chikan." My friend explained that Lucknow had a long tradition of producing intricate embroidery known as chikan that are coveted by women from across the country. Most people will tell you that this type of needlework got its start in the city during the Mughal era, although some historians believe the craft to be much older, possibly dating back as far as the 3rd century BC.

Chikan is just one of many traces that the onetime rulers of Lucknow and its surrounding Awadh region left behind in what is now an increasingly modern metropolis. These rulers of Persian origin, known as Nawabs, controlled the region from the early 18th century until the British Annexation of Awadh in 1856. The Nawabs also left behind many of Northern India's most stunning architectural treasures, and the shrines, mosques, and tombs built under their patronage are among Lucknow's finest attractions.

We hired an autorickshaw to take us to Chowk, a market area where Nidhi said I could find beautiful chikan garments. We chugged along streets lined with single-story shops slathered with colorful hand-painted advertisements. At the market, Nidhi steered me past street food stalls, down an alley and past a little workshop where lengths of muslin were being stamped with woodblocks, later to be embroidered over in the chikanari style.



인도 북부에 위치한 도시 러크나우. 고풍스러운 문화 유적으로 유명하지만, 도심은 오토바이와 삼륜차로 가득하다. 면직물 가게. 인도 특유의 다채로운 색상이 눈길을 끈다. 코끼리 벽화 앞에 앉아 이야기 중인 힌두교 성자. 러크나우 사람들의 옷과 집은 온통 화려한 색을 자랑한다(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Counterclockwise from above) The streets of Lucknow, in Uttar Pradesh, India, are busy with motorbikes and autorickshaws; a cotton shop; a sadhu shares knowledge in front of a street painting of an elephant; a colorfully decorated hindu home.



웅장한 사원 니디는 치칸 가게 안으로 나를 이끌었다. 가게 안에는 맨발의 점원이 펼쳐 보이는 다채로운 문양의 직물에 검은 부르카를 입은 여인 두 명이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니디는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풍채 좋은 남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파란색 치칸 튜닉을 보고 싶은데요.” 니디가 힌두어로 말했다. “여기 앉으세요.” 가게 주인은 영어로 대답한 뒤 점원을 불렀다. 가게 뒤편에서 젊고 마른 남자 한 명이 나오더니 재빨리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선반을 타고 올라가 주름진 비닐에 싸인 파란 색상의 천 몇 개를 꺼내왔다. 약간의 가격 흥정 끝에 꽃, 덩굴, 페이즐리 문양이 흰색 실로 수놓아진 연한 청록색의 셔츠를 사기로 결정했다.

가게 밖으로 나와 인력거를 타고 우리가 향한 곳은 바라 이맘 바라 사원. 러크나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로 18세기에 지어진 시아파 이슬람교 사원이다. 이스탄불의 ‘승고한 문’, 바브 알리를 모델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는 러크나우의 대표적인 건축물 루미 다르와자 문을 통해 사원으로 들어갔다. 구시가지로 통하는 이 문은 178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2개의 길고 뾰족한 첨탑 사이로 황금빛 꽃잎이 피어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문 꼭대기에는 돔 형태의 둥근 지붕 구조물인 ‘차트리’가 있는데, 나와 브 통치 시절에는 매우 큰 등불을 켜놓아 전기가 없던 당시 지상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우리가 탄 인력거는 루미 다르와자 문에서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바라 이맘바라 사원 입구에 멈춰 섰다. 이 사원은 대기근 시기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당시 나와브였던 아사프 우드 다울라의 지원하에 축조됐으며, 아사프 우드 다울라의 사망 후 시신을 사원의 벽 사이에 매장했다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곳 사원의 중앙 홀은 어떤 기둥이나 지지대 없이 지어진 가장 큰 규모의 돔 구조물 중 하나라고 한다. 이곳에서 나의 관심을 끈 것은 3층짜리 미로인 ‘불블라이야’였는데 수백 개의 좁은 통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상당수는 막다른 길로 이어진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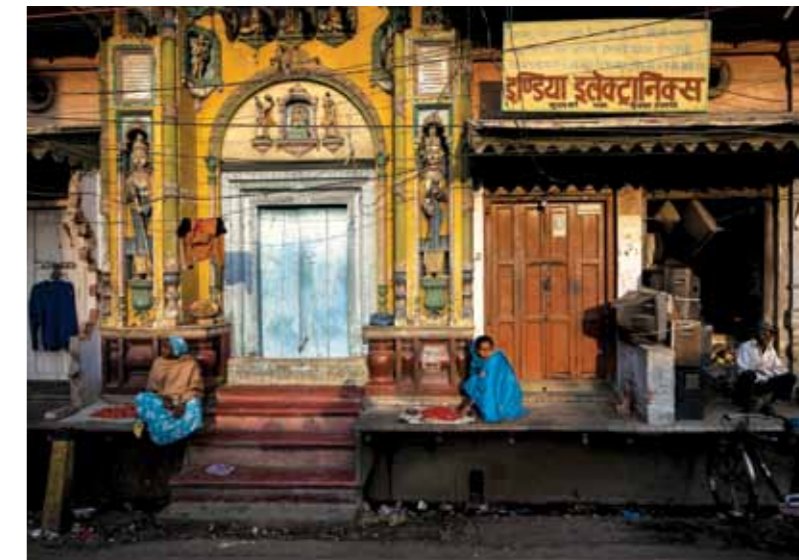
양쪽으로 양파처럼 생긴 돔 구조물이 길게 늘어서 있는 사암(砂岩) 사원의 입구로 다가갈수록 자동차 소음과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니디는 치칸 꽃자수로 살짝 멋을 낸 핑크 스카프를 머리에 둘렀다. 스카프의 지수 문양을 바라보던 나는 시선을 돌려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바라 이맘바라 사원을 감상했다. 아와디 지방의 수도로 전성기를 누렸던 때부터 독립운동 시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그야말로 수세기를 변함없이 이곳에서 있었던 사원의 모습은 장엄하고 숭고했다. 현대의 시류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예술과 문화적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도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다. 📷 클 마고 빅 사진 파스칼 피니에

Stately Shine We eventually stopped in front of a fabric shop. “This is the place for chikan,” Nidhi said, leading me inside. The shop was empty, save for a pair of women clad in black burkas who were admiring kaleidoscopic swathes of cloth. “Hello,” Nidhi said to a chubby older man who I assumed owned the shop. “We’re looking for a blue chikan tunic,” she continued in Hindi. “Have a seat, please,” he responded in English before bellowing for one of his shop assistants. From a back room a skinny young man emerged. He quickly scaled a floor-to-ceiling shelf, pulling out blue tops encased in crinkly plastic. After a bit of gentle haggling, I settled on an aquamarine shirt, covered with white embroidered flowers, vines and paisley swirls.

Back outside, we hired a rickshaw to take us to Bara Imambara, an 18th-century Shiite shrine and Lucknow’s most popular attraction. We approached the shrine via Rumi Darwaza, Lucknow’s iconic gateway that some claim was modeled on Istanbul’s Sublime Porte. Built in the 1780s, this entryway to the old city resembles a sandy gold flower petal that had sprouted a couple of skeletal minarets. At its crown is an open cupola, or *chhattri*, that is rumored to have housed an enormous lantern in the days of the Nawabs, allowing the great gate to serve as a terrestrial lighthouse.

Our rickshaw dropped us off a few hundred meters past the Darwaza, at the entryway to Bara Imambara. The shrine was constructed under the auspices of Nawab Asaf-ud-Daula, whose body was later interred between its walls, as an economic stimulus project during a time of great famine. I later learned that its main hall is among the largest domed structures without any supporting beams or buttresses — but my main interest in the site was the Bhulbhulaiya, a three-story maze comprising hundreds of narrow, interconnected passageways.

The din of car horns and unmuffled motorcycles faded into the background as we approached the sandstone shrine’s entryway, which was flanked on each side by onion-domed wings. Nidhi covered her head with a dusty pink scarf, lightly embellished with flowery chikan work. My eyes wandered from the embroidery up to the stately shrine. I was reminded of India’s unparalleled knack of keeping up with modern times while proudly maintaining its artistic and cultural traditions. 📷 By Margot Bigg Photographs by Pascal Meunier



러크나우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한 곳인 칼리 바리 사원. 고티 강변을 따라 다채로운 색상의 빨래가 널려 있는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 같다. 러크나우 시내의 라다 크리슈나 사원. 인도 전통 스타일로 건축된 바라 이맘바라 사원의 계단식 우물. 한때 저수조로 사용되기도 했다(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Clockwise from above) Kali Bari is one of the oldest temples in Lucknow; washed clothes hang to dry along the Gouti River; the Radha Krishna Temple; the bowl of Bara Imambara, built in a pure Indian style, was once used as a water reservoir.



©Pascal Meunier / Lightmediation



대한항공은 Mumbai로 주 3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Mumbai three times a week.

● **찾아가는 길** Mumbai에서 러크나우의 차우다리 차란 싱 공항까지 가는 항공편은 매일 운항하며,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침대 칸에 에어컨까지 설치된 기차를 이용하면 시골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겠지만, 이동하는 데만 24시간 이상 걸린다.

● **추천 숙박지** 고풍 나가르에 위치한 비반타 바이 타지는 시내에서 가장 품격 있는 호텔이다. 친절한 직원들과 러크나우 전통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으로 유명하다. 피카딜리는 좀 더 저렴한 숙박 시설로, 이 도시의 유적지에 걸맞은 동화 같은 매력은 없지만, 현대적이고 잘 관리된 시설과 공항과의 근접성 때문에 비즈니스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다.

● **추천 먹을거리** 러크나우는 다채로운 아와디 요리로 인도에서도 손꼽히는 곳이다. 수세기째 걸쳐 전승된 전통적인 요리 방식으로 석쇠 굽기와 '뭉 푸크트'라는 조리법이 있다. 뭉 푸크트는 완전히 익히지 않고 조리한

재료를 뚜껑 닫은 용기에 넣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익히는 조리법이다. 대중적 음식으로 케밥, 뭉 푸크트 조리법으로 만든 향미(香米)와 고기 요리를 말하는 비리아니, 납작한 빵을 곁들인 고기 스테이크 니하리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케밥인데, '입 속에서 살살 녹는다'는 의미의 갈라와티 케밥으로 잘 알려진 100년 전통의 툰다이 카바비 식당의 케밥이 가장 유명하다. 비리아니를 맛보고 싶다면 툰다이 카바비와 편안한 분위기의 와히드 비리아니나 랄라 비리아니를 방문해보기를 권한다. 정찬 코스 요리는 아와디 전통식을 전문으로 하는 클라크 호텔의 팔락누마가 추천할 만하다.

● **추천 볼거리** 바라 이맘바라는 러크나우의 수많은 역사적 명소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곳이다. 18세기에 지어진 이 웅장한 사원은 후기 무굴 제국의 건축 양식에서 볼 수 있는 스타일로 축조되어 화려한 장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모스크, 계단식 우물, 거미줄처럼 얽힌 3층짜리 미로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 **GETTING THERE** There are daily flights from Mumbai to Lucknow's Chaudhary Charan Singh airport. The trip between the two cities takes just over two hours. Trains equipped with air-conditioned sleeper cars also connect the two cities, and traveling by rail is an excellent way to experience the Indian countryside. Travelers should be aware that the trip takes over 24 hours.

● **WHERE TO STAY** The Vivanta by Taj in the upscale Gomti Nagar neighborhood is the most elegant hotel in town. Set on the edge of a sprawling park, this palace hotel is known for its attentive staff and excellent restaurant, which serves traditional Lucknowi cuisine. The Piccadilly is a slightly more affordable option, and while this hotel lacks the fairytale charm of some of the city's older properties, its modern, well-maintained ambiance makes it popular among business travelers.

● **WHERE TO EAT** Lucknow is known across India for its rich Awadhi cuisine. This centuries-old culinary tradition relies on a grilling and slow cooking

method known as *dum pukht*, in which food is cooked over a low flame in a sealed container, usually with a drop of water to create a steam effect. Popular dishes in Lucknow include kebabs, *biryani* (fragrant rice and meat dishes, cooked in the *dum pukht* method), and *nihari* (meat stew served with flatbread). Kebabs are arguably Lucknow's most celebrated food, especially those served at Tunday Kababi, a 100-year-old Lucknow institution known for its Galawati kebabs. For a formal experience, the best option is Falaknuma, in the Clark Hotel, which specializes in Awadhi fare.

● **WHAT TO SEE** The Bara Imambara is arguably the most stunning of Lucknow's many historic attractions. This enormous shrine complex was built in the 18th century in the ornamental style common in late-Mughal architecture. Features include a mosque, a step-well, and a labyrinth that weaves over three stories.

자세한 문익은 한진관광으로 문의바랍니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HANJIN TRAVEL
www.kaltour.com



루미 다르와자 문
Rumi Darwaza Gate

© Pascal Meunier / Lightmediation